

‘배움의 도시’ 장성군, 교육분야 공약 완성 눈앞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지정...전담조직 신설 등 김한중 군수 “미래 경쟁력 갖춘 도시로 만들 것”

장성군이 3년여의 노력 끝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 15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결과, 신규 평생학습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건 평생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다. 평생교육 추진 역량, 학습 접근성,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평생학습도를 종합 평가해 결정한다.

올해 군은 ‘문(文)불여장성, 배움의 문(門)이 되는 도시’를 주제로 청년 로컬창업 프로젝트 및 19개 프로그램 성과를 제시해 지역 기반 학습 체계의 우수성과 평생학습 정책 실행력을 인정받았다.

군은 평생학습 전담조직 신설, 읍·면 평생학습 거점 확대, 주민 수요 기반 운영체계 마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세계 최장기간 운영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장성아카데미’의 성과도 빼놓을 수 없다. 지방자치가 출범한 민선1기부터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인문학 저변 확장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 문화를 축적해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장성군의 평생학습도시 추진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번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장성군의 교육분야 공약은 이행률 100% 달성에 목전에 두게 됐다. 민선 8기 장성군의 교육 공약은 평생학습도시 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졸업 예정 대학생 주거비 지원, 초·중·고 신입생 입학 축하금 지원, 청소년 수당 지원 등이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부모가 3년 이상 장성에 살고 있는 가정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 납부액을 학기당 최대 200만원씩 8학기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호응이 높다. 군에 따르면 2023년 2학기부터 지난해까지 총 1207명의 대학생에게 학비 18억3700만원을 지급했다.

졸업 예정 대학생이라면 주거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재)장성장학회가 시행하



장성군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

사진제공=장성군

는 ‘1학기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에게 월세 또는 기숙사비를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은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에 일조한다. 역시, 2023년부터 지

원을 시작했으며 총 2160명의 학생에게 4억4700만원을 지급했다. 군은 20일까지 올해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청소년 수당 (꿈키움바우처)’은 지역 청소년에게 문화·여가·교육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3~18세 학생에게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바우처 카드’로 적립

해 준다.

장성 서부권의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공간을 제공하는 삼계면 ‘청소년문화의집’도 계획대로 건립 중이다. 삼계고등학교 인근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며 노년연습실, 영화감상실, 커뮤니티룸, 방과후교실, 동아리실 등을 갖춘다. 총사업비 76억 원 가운데 약 61억원을 도비로 충

당해 재정적 부담이 적다.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민선 8기 교육 분야 공약 이행 성과를 바탕으로 배움이 개인 성장의 넘어 미래 경쟁력이 되는 도시, 군민 누구나 평생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장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hb6699@gwangnam.co.kr

화순문화관광재단 ‘공공 민간 SaaS 이용 지원’ 선정

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예산 절감 등 기대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전남권역 기초 문화관광재단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한 ‘공공부문 민간 SaaS 이용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부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재단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하이퍼테크’의 ‘공공기관용 ERP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급여·예산·결산

관리 등 공공기관의 주요 회계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클라우드 기반 전자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클라우드 기반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으며, ERP 시스템 초기 구축비 등 약 3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ERP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체계화해 업무 효율성과 행정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구축, 운영 비용 절감으로 문화관광 사업 추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



화순군문화관광재단 전경.

사진제공=화순군

도 마련될 전망이다.

구종천 화순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

으로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 재정의 재정 기반과 예산 운영의 자립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

고흥, 우기 대비 82개 소하천 정비 본격화

내달 준공 목표...주민 생활환경 개선 기대

고흥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하천 8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하천 정비사업을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조기 발주를 통해 우기 전 하천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통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집중호우나 영농활동 등으로 인한 공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지난해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미리 발굴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올해는 정비 효과가 큰 구간부터 예산을 우선 투입하며, 특히 주민 통행이 잦은 구간과 농경지 인접 구간, 퇴적이 심한 구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도 하천 여건 변화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생활권 중심의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나선다.

고흥군 관계자는 “하천 유지관리는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관리의 핵심”이라며 “사업을 조기에 발주한 만큼 우기 이전에 정비를 마무리하고, 준공 이후에도 읍·면과 협력해 정기 점검과 현장 예찰을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완도 정동리 구계등



구계등 아영장

‘완도치유페이’ 여행 경비 지원·이벤트 추진

월별 추천 관광지 방문·후기 작성시 특산품 지급

완도군은 관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완도치유페이’ 시행과 함께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했다.

‘완도치유페이’는 관광객이 숙박, 식당, 카페 등에서 경비를 사용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완도치유페이(쿠폰) 또는 완도 청정마태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월~4월 시행한다.

완도치유페이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은 ‘완도치유페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완도 관광지·특산품 홍보를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추천 관광지를 방문하고 후기를 남기면 특산품을 증정하는 ‘완도, 열두 달의 설렘’ 이벤트를 진행한다.

월별 추천 관광지는 계절별 특색에 맞춰 구성됐으며, 누리집과 SNS를 통해 홍

보할 계획이다.

3월 추천 관광지는 파도와 갯물이 빛이 내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힐링할 수 있는 ‘정동리 구계등’과 ‘아영장’이다.

이벤트는 국민 누구나(완도군민 제외)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매월 완도군이 선정·추천하는 관광지를 방문한 뒤 ‘완도군 문화관광 누리집(관광 이야기)’에 여행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군은 후기 작성자 중 매월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정, 3만원 상당의 전복을 증정하며, 당첨자는 개별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완도는 청정한 바다와 숲, 특색 있는 섬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관광지”라며 “완도치유페이로 알뜰하게 여행하고 후기 작성 이벤트에 참여해 특산물도 받아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담양, 인구 감소 위기 극복 ‘총력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박차

담양군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해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기금 운영 지침 개

편에 맞춰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인구증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의 틀을 전면 개편한다.

특히 주민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현장 밀착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이를 위해 16일까지 지역 주민과 3년 이내 전입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6월 말 제출 예정인 투자계획서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이는 담양이 확보할 수 있는 잠정 120억 원 규모 기금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의 경우 담양군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설문지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감소 대응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을 집중 발굴하겠다”며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담양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설문조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담양=이사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진도, 살수차 소독 지원 예비비 긴급 투입

‘가축 질병’ 방역 강화...민관 협력체계 구축

진도군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방역이 취약한 관내 축산농가에 살수차 소독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3000만원을 긴급 투입한다.

진도군은 예비비를 활용해 기름류와 폐지 사육 농가에 살수차 소독을 진행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다.

특히 축사 지방과 농장 진입로 등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살수 소독을 진행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농가 방역소독을 점검하는 등 다각적인 차단방역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순천, 세계유산축전 성과평가 ‘전국 1위’

순천시가 최근 국가유산청 주관 ‘2025년 세계유산축전’ 성과평가에서 전국 4개 개최지 중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세계유산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 심사, 관람객 만족도, 행정 실적을 종합해 실시됐으며, 순천시는 합산 점수 85.13점으로 종합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문화유산(선암사)과 자연유산(순천천계)을 잇는 독창적인 콘텐츠 구성과 안정적인 운영 체계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9월 열린 22일간의 축전 기간 중 약 13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이를 통해 약 14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6억원의 부가 가치 유발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전국 개최지 중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은 순천의 유산 가치를 아끼고 함께해주시 시민들의 자부심이 만든 결실이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해 세계유산축전을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순천만의 독보적인 문화 브랜드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축전의 성과가 지역 사회에 지속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차기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